



스톱을 모르는 'TOP'



추신수, 콜로라도전 3타수2안타1볼넷
4경기 연속 '멀티히트'...팀은 2-8 패
타율 0.360, 출루율 0.491...AL 1위

추신수 눈부신 성적표 (5월 6일 현재 OPS=출루율+장타율)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성적	0.360	0.491	0.551	1.042
순위 (아메리칸 리그)	1위	1위	7위	1위

아메리칸리그 타율과 출루율 1위에 오른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4경기 연속 몰오른 타격감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쿠퍼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인터리그에서 2루타를 포함해 3타수 2안타와 볼넷 1개를 골랐다.

1득점과 1도루까지 추가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360으로 끌어올리면서 리

그 1위를 지켰다. 또 전매특허인 출루율은 0.491을 기록, 아메리칸리그 1위를 확고히 했다.

변함없이 1번타자와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콜로라도 선발 조던 라일스를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 끝에 2루 땅볼에 그쳤다.

텍사스가 0-2로 뒤진 3회초 2사 3루에서는 역시 풀카운트에서 볼넷을 고른 뒤 2루 도루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빠른 발로 2사 2·3루의 득점 찬스를 만들었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6회초 다시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총알같은 2루타를 친 뒤 콜로라도 중견수 드루 스티브스가 공을 더듬는 사이 3루까지 차지했다. 이어 추신수는 후속 땅볼때 홈을 밟아 텍사스의 첫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텍사스가 1-7로 크게 뒤진 8회초 4번째 타석에도 좌전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텍사스는 팀 타선이 끝내 터지지 않아 2-8로 졌다. /연합뉴스

부상 병동 호랑이 군단 "휴식이 보약"

이범호·김선빈 이어 김민우까지 엔트리 말소

9일부터 한화전 등 42경기 지옥의 레이스 돌입

'호랑이 군단'이 휴식기에 들어갔다. KIA는 8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9일부터 대전에서 한화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휴식기를 맞은 KIA의 화두는 '부상'이다. 특히 내야가 주의 지역이다. SK·넥센과 6연전을 치르면서 두 명의 유격수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김선빈이 1일 SK전에서 주루를 하다가 우측 허벅지 뒤쪽에 통증을 호소하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근육이 찢어지지

는 않았지만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4일 넥센전에서는 김민우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김선빈을 대신해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민우는 수비도중 허벅지 부상을 당했다. 좌측 햄스트링 부분 파열 진단이 나오면서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벌써 내야에서 나온 4번째 부상이다. 김주형이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포구 도중 무릎 인대 부상을 당해 가장 먼저 자리를 비웠고, 이범호는 4월19일 SK전에서 수비 도중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엔트리가 말소됐다.

다행히 줄부상에도 지난해와 같은 '부상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필필 날던 김주형이 개막 하루 만에 부상자가 됐지만 외국인 선수 필이 시범경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팀 타격을 주도하며 1루를 지켰다. 이범호의 부상공백에서는 김주형이 엔트리를 채웠다. 기대했던 타격은 아니지만 수비에서는 크게 이범호의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선빈의 부상에는 김민우가 빛났다.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온 김민우는 3일 유격수로 선발출전해 3안타를 몰아치며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김민우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서는 2년차 고영우가 기회를 받았다. 고영우에게도 아찔한 장면이 있었다. 수비 도중 상대 주자에게 정강이가 찍히면서 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윤완주도 내야에 입성했다. 김민우를 대신해 엔트리에 등록된 윤완주는 첫날부터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멀티플레이어 박기남도 견재하고, 기대주 강한울도 2군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내부 경쟁으로 부상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부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휴식기가 끝나면 KIA는 42연

전 일정을 치러야 한다. 체력 부담이 더해지게 되는 만큼 추가 부상은 전력에 큰 부담이 된다.

'부상병동'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올 시즌에도 주축급 선수들이 재활군을 오르내리라 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구단은 다각적으로 줄부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반복되는 부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선수들도 '부상도 실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프로다운 몸관리를 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 공 던져도 좋다"

다저스 "어깨통증 사라져"

14일 마운드 복귀할 듯

어깨 근육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 주치의로부터 공을 던져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

5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다저스 팀 주치의 엘라트라치 박사는 "더는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6일부터 투구 훈련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돈 매팅리 감독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어깨에 통증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내일부터 투구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27일 콜로라도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뒤 왼쪽 어깨 근육에 염증이 나타나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네애플리스, 마이애미로 이어지는 원정 경기에 동행했던 류현진은 4일 홈로 LA로 돌아와 검사를 받았다.

류현진은 4월 28일부터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소급적용돼 이르면 13일부터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설 수 있다.

류현진은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뛰던 2011년에도 왼쪽 어깨 근처 견갑골이 떨어져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부상으로 엔트리에 빠졌다.

당시 류현진의 재활 과정을 지켜본 한화 관계자는 "다저스의 판단처럼 큰 부상이 아니다. 물리치료만으로도 완쾌될 수 있다. 누구보다 류현진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디오스 연아"

'피겨 여왕' 김연아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팅 2014'을 통해 은퇴무대를 가졌다.

/연합뉴스